

교 육 학 석 사 학 위 논 문

중 학교 학생의 성별에 따른
집 단 따 돌 림의 실 태 및 인 식 연 구



2007년 8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일반사회교육전공

이 효 정

교 육 학 석 사 학 위 논 문

중학교 학생의 성별에 따른
집단따돌림의 실태 및 인식 연구

지도교수 이 대 희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7년 8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일반사회교육전공

이 효 정

이효정의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07년 8월 일



주 심 정치학박사 하 봉 규 (인)

위 원 정치학박사 이 대 희 (인)

위 원 정치학박사 이 성 봉 (인)

목 차

Abstract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2
3. 연구의 제한점	3
II. 이론적 배경	4
1. 집단따돌림의 개념	4
2. 집단따돌림의 유발원인	6
3. 집단따돌림 가해자, 피해자 특징	10
4. 집단따돌림의 유형	12
5. 선행연구의 고찰	14
III. 연구방법	18
1. 연구 대상 및 표집 방법	18
2. 분석의 모형 및 측정도구	19
3. 자료의 처리	20

IV 연구 결과 및 해석 21

1. 전체 질문에 대한 응답 빈도 및 백분율..... 21
2. 연구문제 1의 검토 23
3. 연구문제 2의 검토 27
4. 연구문제 3의 검토 30

V. 결론 및 제언 39

1. 요약 및 결론 39
2. 제언 42

참고문헌 44

부록 47

표 목 차

<표 1> 괴롭힘 유형의 분류.....	14
<표 2> 설문지 배부 및 회수 현황.....	18
<표 3> 설문지 문항 구성	19
<표 4> 전체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빈도 및 백분율).....	21
<표 5> 학급내 집단따돌림의 유무 실태.....	23
<표 6> 집단따돌림의 목격 유무	24
<표 7> 집단따돌림 가해, 피해 경험의 유무 실태	25
<표 8> 집단따돌림의 유형.....	27
<표 8-1> 집단따돌림 유형 구분.....	29
<표 9> 집단따돌림 이유에 대한 인식	30
<표 10> 가해자를 보는 인식 (느낌)	32
<표 11> 집단따돌림 누가 문제인가.....	33
<표 12> 집단따돌림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35
<표 13> 집단따돌림 해결을 위해 학교에 바라는 점.....	36

**A Study of Gender Differences on the Realities and Recognition of
Bullying by Middle School Students**

Lee, Hyo-Jung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and analyze the gender differences on the realities and recognition of bullying by middle school student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279 middle school students, who were in two boys' and two girls' middle schools in Busan. The data of this study was collected through a questionnaire and processed by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First, the number of cases and the percentage were produced, and then the results were analyzed with the X^2 test to identify the gender differences in the realities and recognition of bullying.

Following are the research questions of this study.

1. According to the gender of middle school students, is there any difference in the realities of bullying?
2. According to the gender of middle school students, is there any difference in

the type of the bullying?

3. According to the gender of middle school students, is there any difference in the recognition of the bullying?

The findings of this study showed that;

1. According to the gender, the realitie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The frequency of bullying, the experiences of watching, suffering, and inflicting were more in the female students' classes. The percentage of watching experiences was 60.6 % in the female classes.
2. The gender differences of bullying type were significant. In the case of male students, the outward bullying type was more frequent. Bullying by relationship was more revealed among the female students.
3. The difference of the recognition about bullying was also significant. There were significant gender differences in the recognition of the victims, the problems of the responsibility, and the expectation about solutions by the schools aside from the students' recognition of the seriousness about bullying problems.

On the basis of the results,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1. Since the results of the study's analyses showed meaningful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gender, schools should consider the students' gender when they deal with bullying problems.
2. Not the simple investigation of bullying, but in-depth studies based on the gender differences should be conducted. In addition, various programs to guide the students should be made according to the types of bullying.
3. For solving bullying problems, active intervention by schools should be considered. Before this, schools' recognition of bullying should be immediately acquired and extended.

Key words; gender differences of middle school students, realities of bullying,
types of bullying, recognition of bullying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이제 일선 학교에서의 집단따돌림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닐 만큼 광범위하게 퍼져 하나의 중요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의 여러 언론보도를 통해 살펴보면, 2003년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전국 150개 초·중·고교생 14,68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폭력 및 집단따돌림 실태조사에서도 조사대상의 21.6%가 집단따돌림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경향신문, 2003년 8월 19일), 이러한 집단따돌림을 피하기 위해 거주지를 바꾸지 않고 학교를 바꾸는 학교장 직권 전학을 하는 비율도 매년 급증현상을 보이고 있다(한국일보, 2006년 12월 3일)고 한다.

또한, 서울의 한 초등학교 6학년생이 급우들의 집단 따돌림을 참다못해 가출한 사건(한겨레신문, 2006년 11월 14일) 및 안산의 한 고등학생이 혀가 짧아 말을 더듬는다는 이유로 3년간 급우들에게 따돌림을 당한 것을 비관해 자살한 사건(중앙일보, 2006년 3월 20일) 등에서도 그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다.

학생들의 청소년기는 다양한 인간관계를 습득해가면서 이 때 경험하는 인간관계의 특성이 각자의 인간성뿐만 아니라 인생의 전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사실이다.

따라서 학생들의 자살문제 뿐만 아니라 청소년기의 원만한 인간관계 형성을 저해하는 집단따돌림 현상을 학생들 사이에 나타날 수 있는 자연

스런 또래관계의 한 유형으로만 취급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좀 더 진지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집단따돌림의 부정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교육현장에서는 이것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지 않거나,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하더라도 집단따돌림에 대한 정확한 실태 등에 대해 잘 알고 있지 못하는 경향이 많다.

더욱이 기존의 조사와 연구들은 주로 집단따돌림의 원인과 피해자·가해자의 특성에만 치우쳐 성별에 따른 집단따돌림의 실태 및 인식연구가 부족하며, 그 실태조사의 결과에 있어서도 서로 통일되지 않고 연구자들마다 각기 다른 결과치를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소홀히 다루었던 성별에 따른 집단따돌림의 실태와 인식에 대해 조사하고자 한다.

즉, 성정체감이 확립되어져 가는 청소년기의 남녀 학생들이 사고방식 및 행동양식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차이를 가지게 되므로 집단따돌림 역시 차이가 있을 것이라 예상하면서 중학교 학생의 성별에 따른 집단따돌림의 실태 및 인식에 대해 연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은 일선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남녀 학생들의 집단따돌림의 실태의 심각성을 알아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차이를 정확히 파악하여, 집단따돌림 예방 지도와 대처방안 연구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학생의 성차에 따른 집단따돌림의 실태 및 인식

에 대해 알아보고자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중학교 학생들은 성별에 따라 집단따돌림 실태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중학교 학생들이 성별에 따라 집단따돌림 유형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중학교 학생들은 성별에 따라 집단따돌림 인식에 차이가 있는가?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에서는 그 절차나 방법 및 분석 시에 몇 가지 불가피한 제한점을 지니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첫 째, 본 연구는 연구 대상이 부산광역시내의 남녀공학을 제외한 남중학교 2개교, 여중학교 2개교 총 4개교만을 한정하여 조사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다소 무리가 있는 한계가 있다.

둘 째, 본 연구는 집단따돌림의 실태 및 인식의 차이를 성별로만 한정지어 살펴봄으로써 그 밖의 변인들(학교유형, 성적, 경제수준, 가정내 환경 등)이나 다른 면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셋 째, 본 연구는 성별에 따른 집단따돌림의 실태와 인식 차이만 국한해 집중적으로 연구하면서 성별에 따라 왜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근본적 원인 분석이나 심리상태 등은 논의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Ⅱ. 이론적 배경

1. 집단따돌림의 개념

집단따돌림은 어느 사회에서나 오래 전부터 있어 온 현상이다. 가해자와 피해자 문제에 대해 많은 것이 알려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1970년 대 초반이 되어서야 비로소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졌다.

우선 집단따돌림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면 집단따돌림은 영어로 bullying, mobbing, 또는 일본어로 이지메 등으로 불려지고 있다.

Heinemann(1973)은 최초로 mobbing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스칸디나비아 반도 지역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로서, 여기에 관련하여 영어에서 mob는 괴롭힘에 연관된 다수의 익명의 집단을 의미한다.

Pikas(1975)는 mobbing을 정의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준으로 한 사람 또는 한 집단에 대하여, 두 명 또는 그 이상의 개인들의 의해 가해지는 부정적인 활동이 있어야 하고, mobbing 자체가 하나의 목적이며, 피해자를 가해하려 하기보다 아무런 의도 없이 자행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일본에서 사용되는 이지메는 실제 상황에서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개인에게 장기적이고, 조직적인 정신적, 신체적 폭력을 사용하는 개념을 반영한 용어이다(한국교육개발원, 1998).

그 후 Olweus(1978)는 bullying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한 학생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한 명 혹은 그 이상의 다른 학생들의 부정적인 행동에 노출될 때, 그 학생은 집단따돌림을 당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그는 공격적인 행동이거나 고의적인 괴롭힘이고,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며, 힘의 불균형에 의해 특정 지어지는 대인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bullying에 대한 정의를 보완하였다.

Smith(1991)는 bullying 즉 집단따돌림이란 다른 학생에게 신체적이거나 심리적인 해를 입히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가해진 행위가 정당치 않은 것이어야 하며, 반복행동이고, 가해자는 일반적으로 더 강한 존재로 인식되는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특정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용어들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이지메란 용어가 소개되면서부터이다. 이지메를 우리말로 옮긴 말이 집단괴롭힘이며, 이러한 괴롭힘의 형태는 고립과 따돌림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에서 생겨난 은어가 이른바 왕 따돌림을 줄여서 말하는 왕따(완전히 따돌림)를 비롯하여 은따(은근히 따돌림), 집따(집중 따돌림), 전따(전교 따돌림), 반따(반에서 따돌림), 따돌이, 따순이 등이며, 이들 은어를 자제하고 통일된 용어를 사용하자는 측면에서 집단따돌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집단따돌림은 기본적으로 학급 내에서 학생들 간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학생들 간의 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특정 학생이 함께 어울리지 못할 때, 따돌림이라는 부정적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이러한 따돌림이 좀 더 적극적인 형태를 보일 때, 집단따돌림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황성숙(1998)은 집단따돌림은 동일집단 내에서 다수와 개인 또는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강자가 약자에 대해 일방적으로 육체적, 심리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이며,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춘재 등(1999)은 힘센 개인이나 집단이 대항할 힘이 없는 대상을 지

속적으로 괴롭히고, 신체적, 심리적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소외시키는 현상이 집단따돌림이라고 정의하면서 인정과 사랑은 말할 것도 없고 소속감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박탈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집단따돌림과 외국의 집단따돌림 개념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먼저 일본의 이지메는 모자라고 약한 자를 주 대상으로 하지만, 우리나라는 잘난 척하고, 믿을 수 없고, 이기적이거나 남을 무시한다는 이유가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구본용, 1997).

또 bullying의 경우는 폭력적 행동이 더 많은 반면, 우리나라의 따돌림은 소외가 강조되고 있다.

위의 정의들을 종합해 정리하면, 두 명 이상의 집단이 자신보다 약한 상대에게 심리적, 언어적, 신체적 고통을 암묵적 혹은 직접적으로 가하여 피해를 입히는 것을 집단따돌림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2. 집단따돌림의 유발원인

집단따돌림 유발원인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데, 이돈희(1996)는 폭력내용이 범람하는 사회문화적 영향, 자녀에 대한 이해부족의 가정환경, 낮은 도덕성과 좋지 못한 친구관계를 가지고 있는 개인적 습관과 능력, 지나친 공부 압력으로 인한 학교교육 요인으로 설명하였다.

구본용(1997)은 집단따돌림의 원인을 따돌림이 나타나는 심리, 사회적 원인으로 청소년들의 심리·사회적 정체감 확립과정에서의 좌절감, 왜곡된 방식으로의 우월감 추구, 이기적 자기 중심화 경향의 확대에 의한 타인 수

용 능력의 결핍, 도덕 교육의 부재 등을 제시하고 있다.

박경숙(1998)은 구조적 원인으로 학력지상주의 사회에서 비롯된 과열된 경쟁과 관리적 학교 시스템, 학생의 인권 침해와 차별의 원인이 되는 교사의 언동, 학교 성적만을 중요시 하는 어른들의 일방적이 가치관 등을 들었다.

박진생(1999)은 집단따돌림의 요인을 개인 심리적 요인, 가정적인 요인, 학교의 요인, 사회적인 요인으로 나누었다. 개인심리적 요인은 자아존중감 저하 및 열등감, 정서불안 등이며, 가정적요인은 불안한 가정환경 및 경제적 빈곤 등이며, 학교의 요인으로는 입시위주의 지나친 경쟁 및 체벌위주의 교육, 교사의 자질 부족 및 권위 실추 등이며, 사회적 요인으로는 개인주의, 이기주의 성향의 증가, 매스컴의 무분별한 선정성, 폭력성 등이다.

위의 집단따돌림 원인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학교문화에 따른 원인, 가정 환경적 원인, 학생 개인적 원인, 사회 풍조적 원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전영기, 2000; 이성희, 2000; 최현태, 2004).

(1) 학교문화에 따른 원인

① 학교문화의 비인간화와 학생문화의 왜곡

통제위주의 학급관리를 하는 담임교사에 대한 불만과 학생들의 교실 생활이 일상적으로 욕, 갖은 장난, 폭력적인 행위가 범람하면서 교사와 학생 또는 학생과 학생사이에 상호작용의 부조화로, 학생 개인의 욕구와 학교의 욕구가 조화를 이루기 어려운 비인간적 문화 및 학생 문화의 왜곡을 가져왔다.

② 성적중시 풍토 및 학생의 욕구 표출 통로 부족

학생 개개인의 개성과 소질을 존중하지 못하고 성적중시풍토로 인해

학생들이 학교교육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서 하나의 왜곡된 해소통로인 동시에 저항수단의 하나가 따돌림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학생들이 건강하게 욕구를 발산 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한 것이 문제이다.

③ 학교와 교사들의 문제점

지금까지 학교와 학급은 집단 따돌림과 괴롭힘의 문제를 관리하는 자율적 장치가 미흡했으며, 일부 교사들에게 감정적인 폭력을 당하면 학생들은 그로 인하여 정신적인 상처를 입게 된다. 비교육적인 지도를 받은 학생들은 교사의 유, 무형의 폭력을 보고 그러한 폭력적인 행동을 무의식중에 모방하게 되는 것이다. 즉, 학생에 대한 올바른 상담과 선도문화의 부재가 원인이다.

④ 과밀학급과 과다한 학생 수로 인한 문제

과밀학급운영은 당연히 생활지도가 어렵고 학급 구성원 간에 올바른 관계형성에 장애요인이 된다.

이로 인해 학급에서 교사, 학생 간에는 거리감이 있어서 인격과 인격의 교류가 거의 없는 실정이 되기 쉽다.

(2) 가정 환경적 원인

① 현대가정의 문제에 노출된 학생

핵가족으로 변하면서 가정교육이 부족하여 아이들의 사회적 인격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는 원인이 있다. 특히 가정에서 부부 사이의 모범적이지 못한 언행과 자녀에 대한 무관심이 따돌림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한다.

② 학부모의 따돌림에 대한 인식과 체계적 자식 교육 부족

학부모의 성적 지상주의와 자녀 이기주의 식의 자녀 교육으로 아이들

의 사고방식은 공부만 잘하면 된다는 식의 사고방식으로 빠지게 된다. 이러한 부모의 올바른 자식 교육의 부재 속에 학생들은 따돌림을 행하면서 죄책감 없이 오히려 즐기고 계속해서 따돌림을 반복하게 된다.

(3) 학생 개인적 원인

① 자아정체감 형성과정에서의 좌절

낮은 자아존중감 및 열등감을 지닌 학생들은 정서적으로 불안, 분노, 무력감, 우울 등의 부정적인 정서를 가지게 되면서 폭력적 성향과 공격성을 동반해 집단따돌림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② 원만하지 못한 대인관계

적절하지 못한 사회기술 때문에 또래들과 원만한 의사 소통을 하지 못해서 소외되고 적절하게 자기 표현을 못하게 된다.

(4) 사회 풍조적 원인

① 매스컴의 비교육화

학생들은 정신적, 행동적으로 매스컴의 영향을 받고 있다. 대중매체들은 상업주의적 흥미 위주, 폭력적인 것들을 무분별하게 생산한다. 학생들은 이러한 폭력 문화에 물들게 된다. 학생들 사이에 유통되고 있는 유해 만화 등은 일본의 이지메 문화를 모방하는 계기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② 가치관의 전도현상

오늘날의 가치관은 매우 혼란하다. 도덕과 인간주의보다는 순간적인 이익과 경쟁제일주의, 황금만능주의 그리고 인간무시 현상 등이 판을 치고 있다. 여기서 학생들의 윤리의식의 현저한 부족이 관찰된다.

3. 집단따돌림 가해 학생 및 피해 학생의 특징

(1) 집단따돌림 가해 학생의 특징

집단 따돌림 가해 학생들은 비행 행동을 보이는 학생과 평범한 학생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구성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김종미(1997)의 연구에서는 집단따돌림 가해학생은 일반적으로 폭력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피해아동에 대해 감정이입을 잘 하지 못한다고 나타났다.

김종기(1998)의 사례연구에서는 가해학생의 성격이 매우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며, 지나치게 외향적이며, 권력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제시했으며, 우리교육(1999)에서 발표한 가해학생의 가정적 특징은 부모의 자녀에 대한 과잉보호, 지나친 간섭, 이기적인 자녀 교육 등이다.

이러한 집단따돌림 가해 학생의 특징을 정리하면 크게 성격적 측면, 행동적 측면, 환경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우선 성격적 측면에서는 이들은 자기중심적·권력적 성향 및 지나친 외향성과 높은 성취욕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성격적 지향은 또래 집단의 형성이 자기를 중심으로 이뤄지도록 하려는 경향이 강해서 다른 친구가 자신보다 뛰어날 경우 심한 질투심과 경쟁심을 드러내게 된다.

행동적 측면은 공격적 성향을 보인다는 점이다. 이러한 공격성에 피해당한 학생들에 대한 죄의식을 갖지 않으며, 반항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흡연, 약물복용, 폭력, 갈취 등과 관계된 비행행동을 일삼기도 한다.

환경적 측면에서 가장 문제시되는 것은 가정적 요인으로 따돌리는 학생들에게서 발견되는 공통된 특징이 부모의 교육방식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과잉보호·지나친 간섭·거짓말하기 등 이기적

경향을 보이는 부모가 많다는 점이다. 이런 부모들은 특히 자신의 자녀가 다른 친구를 따돌리는 것을 알고서도 올바른 방향에서 지도하려 하기보다 ‘따돌림 당할 만하니까 당하지’라는 식의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2) 집단따돌림 피해 학생의 특징

김용태 등(1997)의 연구에서 나타난 집단따돌림 피해 학생의 특징은 다른 사람과 말하는 것을 기피하거나 무기력하게 가만히 있는 등 자신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타인을 회피하는 것이다.

이규미(1999)는 집단따돌림 피해자를 다른 학생과의 조화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침묵, 무관심으로 권리 침해를 묵인하는 태도를 취하는 수동적 피해자와 주의산만, 과잉행동으로 다른 학생에게 불안과 거부감을 주는 공격적 피해자, 단순한 육체적 장애나 경제적 빈곤, 지적 열등 등의 남다른 특징 때문에 따돌림을 받는 특징적인 피해자로 분류하였다.

이성희(2001)의 연구에서는 집단따돌림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심리적 측면, 정서적 측면, 행동적 측면으로 나눠 분류 하였다.

심리적 측면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낮은 자존감·열등감·피해의식, 내성적 경향성·부정적 자기개념 등이다.

정서적 측면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분노, 외로움, 불안, 우울, 무력감 등을 보이고 있다.

행동적 측면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지나치게 위축되어 무반응의 태도를 보이거나, 자기만의 내적 세계에 빠져 도피하거나, 적절한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고 공격 행동을 보이는 등의 반응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Olweus(1994)는 집단따돌림 피해 학생의 특징을 주변을 짜증나게 하거나 긴장하도록 하는 식으로 행동해 불안한 반응을 나타내는 수동적·복

종적인 경우와 과잉 활동적 특성으로 학급내의 많은 학생들을 괴롭히며 부정적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도발적인 경우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또한 그들의 신체·외모에서 특징을 찾아보면, 비만, 곱슬머리, 허약함, 안경 등 평범하지 않는 외모를 지닌 경우 등이라고도 하였다.

즉, 집단따돌림 피해 학생들은 부적응적인 사고, 정서, 행동과 관련된 역기능적인 대인 의식, 부정확한 대인지각, 부적절한 대인 행동을 나타내는 대인관계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4. 집단따돌림 유형

집단따돌림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여러 방식으로 나뉘지는데, 우선 왕따 보고서(가우디, 1999)에서는 집단따돌림 유형을 다음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첫 번째는 소외형 따돌림으로 노는데 끼워주지 않기, 묻는 말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기, 다른 친구와 같이 놀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등이며, 두 번째 유형은 협박형 따돌림으로 채수 없다는 말을 하는 등의 유형이며, 세 번째 유형은 조롱형 따돌림으로 신체적 장애나 체험과 관련하여 놀리는 것이다. 네 번째 유형은 장난형 따돌림으로 툭툭치기, 가방이나 신발 등을 훼손하는 것이며, 다섯 번째 유형은 강제형 따돌림으로 가방 들게 하기, 준비물 빼앗기 등의 방식으로 따돌리는 것이다.

한편 최은숙(2000)은 집단따돌림을 보다 집약적으로 축소시켜 소외형, 언어형, 신체형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으며, 한림대 소아정신과팀은 집단따돌림을 심부름이나 숙제를 강제로 시키거나 물건을 빼앗는 등의 강

압형, 말을 걸어도 무시하거나 놀 때 끼워주지 않는 등의 소외형, 조롱하거나 욕을 하는 등의 언어폭력형, 때리는 신체폭력형으로 구분하였다.

김예성(2000)은 심한 놀림이나 협박, 욕설, 구타하기, 돈이나 물건 갈취, 고의적인 따돌림, 무시하기, 싫은 일 강제로 시키기 등으로 또래 괴롭힘의 유형을 조사하였는데, 언어적 폭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고의적인 따돌림과 무시, 하기 싫은 일 강제로 시키기, 구타하기, 돈이나 물건 갈취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선주(2001)는 초·중·고학년을 대상으로 집단따돌림에 대한 유형을 공격형, 폭력형, 관계 거부형, 우회형, 조롱형, 종속형, 강제형, 갈취형, 훼손형으로 나눠 분류하였다.

호주의 Rigby(1996)는 16개의 학교에 다니는 9세부터 17세까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 종종 경험하는 괴롭힘의 형태를 조사한 결과, 괴롭힘의 태도를 직접적·간접적 형태와 신체적·언어적·비언어적인 방법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Olweus(1984)는 집단따돌림의 유형을 외현적 따돌림과 관계적 따돌림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외현적인 따돌림이란 직접적 따돌림이라고도 표현되며, 피해 대상에 대해 외부적으로 공격행동을 가하는 것이라 정의했다. 관계적 따돌림은 간접적 따돌림으로 표현되며, 사회적 소외와 내적인 배제를 가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와 유사하게 Crick과 Grotpeter(1996)는 집단따돌림을 외현적과 관계적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이들은 그 동안의 집단따돌림에 관한 선행 연구들이 신체적이거나 언어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외현적 유형의 집단따돌림만을 연구대상으로 두어 왔던 점을 지적하면서, 집단따돌림의 또 다른 하위유형인 관계적 유형의 집단따돌림을 분석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제의하였다.

이상의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집단따돌림의 유형을 크게 외현적 집단따돌림과 관계적 집단따돌림 두 가지로 구분하고, 외현적 집단따돌림은 눈에 보이는 신체적 공격이나 협박, 욕설같은 행위를 포함하며, 관계적 집단따돌림은 여러 가지 활동에서 제외시키거나 나쁜 소문을 퍼뜨려서 친구들을 곤경에 빠뜨리는 것을 포함하는데 구체적인 사례는 <표 1>과 같다.

<표 1> 집단따돌림 유형의 분류

구 분	구체적 사례
외현적 따돌림유형	○ 때리기, 차기, 침 뱉기 등 ○ 언어적 모욕, 별명 부르기, 헐뜯하기 ○ 협박, 위협적인 몸짓 및 금품갈취 ○ 하기 싫은 일 강제로 시키기
관계적 따돌림유형	○ 다른 사람에게 누군가를 해치도록 시키기 ○ 누군가를 모욕하도록 다른 사람을 설득시키기, 악성 소문 퍼뜨리기. ○ 소지품 버리기와 감추기, 어떤 집단이나 활동에서 고의적으로 소외 시키기 등

5. 선행연구의 고찰

집단따돌림에서 나타나는 남녀 성차와 집단따돌림 실태에 관한 연구 중 몇 가지 본 연구와 관련 있는 주요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집단따돌림의 발생 정도와 성차에 관한 연구를 알아보면 Olweus(1994)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많이 집단따돌림에 노출되는 경향이 있다고 조사하였고, 한국교육개발원(1998) 역시 일반적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비율을 보인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그러나 청소년 대화의 광장(1997)은 따돌림 당한 비율을 여학생 32.2%, 남학생 26.2%로 보고했고, 또한 청소년 폭력예방재단(1998)과 김용태와 박한샘(1997)의 조사에서도 남학생보다 여학생 사이에서 더 많이 집단따돌림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한편 남녀 학생의 집단따돌림에 유의미한 성차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이지원, 1999; 최은숙, 2000).

즉,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성차에 따른 집단따돌림 발생 정도에 대한 조사결과가 일관적이지는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집단따돌림 유형과 성차에 관한 선행연구를 알아보면 김용태와 박한샘(1997)의 연구에서는 친구의 따돌림 방법 중 은밀하게 소외시키는 방법은 남학생들보다 여학생들에게서 더 자주 사용된다고 보고하면서 이는 남학생이 신체적 집단 괴롭힘을 선호하는 것으로 남학생의 신체적 힘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또한 여학생들은 직접적인 공격의 집단따돌림보다는 사회적인 고립이나 또래들로부터의 고의적인 배척 형태로 나타나는 간접적인 집단따돌림에 더 많이 노출된다고도 하였다.

또한 위의 연구결과와 같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외현적 집단따돌림을 더 많이 경험한다는 결과(최은숙, 2000)는 일치하였지만, 관계적 집단따돌림에 대한 연구 결과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많이 경험한다는 조사결과(황성숙, 1999)와 유의미한 성차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조사결과(이지원, 1999)가 나타났다.

즉, 성별에 따라 경험되는 집단따돌림의 유형에 대한 조사결과들은 서

로 일치되지는 않지만 다양한 결과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와 관련된 남녀 학생의 성차와 집단따돌림에 대한 인식에 관한 연구는 거의 찾아 볼 수가 없었다.

그나마 소수의 청소년 집단따돌림의 인식에 관한 연구는 이성희(2001)의 중학생 집단따돌림 현상에 관한 연구와 소완섭(2003)의 청소년 집단따돌림 피해자들이 인지하고 있는 인식 연구 등이었다.

위 집단따돌림의 인식에 따른 연구에서 이성희는 가해학생들이 자신들의 따돌리는 행위에 대해 별다른 죄의식이 없이 재미있게 여기거나, 오히려 자랑스럽다고 느끼는 경우가 상당하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고, 소완섭은 집단따돌림 피해학생은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거나, 대인 관계에서 타인이 자기를 어떻게 지각하는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해결방법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개선하거나 항의하지 못하고,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인식이 강하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요컨대 위와 같이 그동안 발표된 성차와 관련된 집단따돌림에 대한 연구논문들을 살펴보면 성별에 따른 집단따돌림의 발생 정도와 유형의 차이만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 남녀 학생의 집단따돌림에 대한 인식차이에 대한 조사는 많이 미흡한 것으로 보여진다.

즉, 기존의 성별에 따른 집단따돌림에 대한 연구들이 특히, 집단따돌림에 대한 인식에 대한 연구가 양적이나 질적으로 매우 부족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남녀 학생들의 집단따돌림의 실태에 대해 조사하는 동시에 기존의 연구들이 소홀히 취급했던 성별에 따른 집단따돌림에 인식의 차이에 대해서도 연구하고자 한다.

이것은 남녀 학생의 집단따돌림의 인식의 차이를 중점적으로 조사 연구하여 기존의 연구의 제한점을 벗어나 성별에 따른 집단따돌림의 실태와

인식에 차이에 대해 파악함으로써 그들에게 유용한 남녀 학생들의 집단따돌림 대책 및 예방 방안 성립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표집 방법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한 연구 대상은 부산광역시 소재 남녀중학생으로 하였으며, 표집대상으로 위 지역 소재 중학교 4개교(남중 2개교, 여중 2개)를 무작위로 선정한 후 학년 상관없이 1개교 70부씩 총 280부의 설문지를 2007년 4월 27일부터 5월 7일까지 10일간에 걸쳐 배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2> 설문지 배부 및 회수 현황

구분	배부 부수(A)	회수 부수(B)	회수율(B/A × 100)
남 학교	140	139	99.29
여 학교	140	140	100
계	280	279	99.64

배부된 설문지 280부 중 회수되지 않은 남학생 1부를 제외한 279부를 연구 목적에 맞추어 집단따돌림의 실태 및 인식에 대해 성별로 조사·분석하였다.

2. 분석의 도구 및 내용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도구는 설문지이며, 설문내용은 박노일(1998)의 학교폭력에 대한 설문지와 김용태(1997)의 청소년 친구 따돌림 실태조사의 설문지를 참고로 하여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였다.

구체적인 성별을 구분하는 기초조사 1문항을 제외한 집단따돌림 관련 설문지 구성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3> 설문지 문항 구성

영역	내용			관련 문항	유의점
집단따돌림 실태	- 학급내 집단따돌림의 유무 실태			1	※ 4번 (집단따돌림 유형) 문항은 반드시 2번 문항 답안이 1번인 경우만 작성함.
	- 집단따돌림의 목적 유무 실태			2	
	- 집단따돌림 가해, 피해 경험의 유무 실태			3	
집단따돌림 유형	- 집단따돌림 유형	답안구성	묵음유형구분	4	
		3,4,5 답안	외현적따돌림유형		
		1,2,6 답안	관계적따돌림유형		
집단따돌림 인식	- 집단따돌림 이유에 대한 인식			5	
	- 집단따돌림 가해자를 보는 인식(느낌)			6	
	- 집단따돌림 누가 문제인가에 대한 인식			7	
	- 집단따돌림 현상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8	
	- 집단따돌림 해결을 위해 학교에 바라는 점			9	

특히, 집단따돌림의 유형에 관한 설문지 경우 집단따돌림을 목격한 학생들로만 한정하여 응답할 수 있게 하였으며, 집단따돌림의 답안을 외현적 따돌림 유형(3, 4, 5 답안)과 관계적 따돌림 유형(1, 2, 6 답안)으로 각 3개씩을 구성하여 이 두 유형을 구분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3. 자료의 처리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의 처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분석기법으로는 중학생들의 집단따돌림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으로 사례수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중학교 학생들의 성별에 따른 집단따돌림의 실태 및 인식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χ^2 검증(카이스퀘어검증)실시하였다.

IV. 연구 결과 및 해석

1. 전체 질문에 대한 응답 빈도 및 백분율

본 연구의 분석대상 279명의 전체질문에 관한 빈도분석 응답특성은 <표 4>와 같다.

<표 4> 전체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 (빈도 및 백분율)

질문	구분	빈도(명)	백분율(%)
응답자 성별현황	남자	139	49.8
	여자	140	50.2
	Total	279	100.0
학급내 집단따돌림의 유무 실태	있다	98	35.1
	없다	181	64.9
	Total	279	100.0
집단따돌림의 목적 유무 실태	있다	169	60.6
	없다	110	39.4
	Total	279	100.0
집단따돌림 가해, 피해 경험의 유무 실태	가해	70	25.1
	피해	27	9.7
	가해, 피해 없다	182	65.2
	Total	279	100.0
집단따돌림 유형	무시하거나 놀아주지 않음	50	17.9
	다른사람과 못놀게함	24	8.6
	욕, 헐박, 폭력 행사	48	17.2
	하기 싫은일 시키기	17	6.1
	금품갈취나 은닉	10	3.6
	친구의 부탁 무시	20	7.2
	Total	169	60.6
	Missing	110	39.4
집단따돌림(따돌림받는) 이유에 대한 인식	신체적 조건	31	11.1
	~적한다	66	23.7
	이기적 건방짐	68	24.4
	공부 못하거나 지능 낮음	35	12.5
	언행 이상이나 눈치 없음	47	16.8
	소극적	31	11.1

	Total	278	99.6
	Missing	1	.4
	Total	279	100.0
집단따돌림 가해자를 보는 인식(느낌)	멋있어 보임	7	2.5
	별 느낌 없음	103	36.9
	나쁘다고 생각만	125	44.8
	혼내주고 싶음	43	15.4
	Total	278	99.6
	Missing	1	.4
	Total	279	100.0
집단따돌림 누구의 문제인가에 대한 인식	피해자	60	21.5
	가해자	66	23.7
	양쪽	140	50.2
	잘 모르겠다	13	4.7
	Total	279	100.0
집단따돌림 현상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별 일 아니다	26	9.3
	아직 그리 심각하지 않음	121	43.4
	심각함	96	34.4
	당장 조치가 필요함	34	12.2
	Total	277	99.3
	Missing	2	.7
	Total	279	100.0
집단따돌림 해결을 위해 학교에 바라는 점	신고체제 강화	60	21.5
	개인별 집단상담 증가	82	29.4
	인간관계 증진교육	69	24.7
	재미있는 자치교육 유도	43	15.4
	교내 순찰활동 강화	21	7.5
	Total	275	98.6
	Missing	4	1.4
	Total	279	100.0

전체설문에 대한 응답자 성별현황은 남학생 139명, 여학생 140명으로 총 279명이며, 이들 중 학급내에 집단따돌림이 있다는 전체 응답학생의 비율이 35.1%로 나타났으며, 집단따돌림을 목격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60.6%나 되었다.

또한, 응답학생 중 25.1%가 집단따돌림 가해경험이, 9.7%가 집단따돌림 피해 경험했으며, 나머지 65.2%는 가해, 피해 경험이 모두 없다고 응답하였다.

자세한 집단따돌림의 실태와 유형및 인식에 대한 남녀학생의 차이에 대한 연구결과는 χ^2 검증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2. 연구문제 1의 검토

- 중학교 학생들은 성별에 따라 집단따돌림 실태에 차이가 있는가?

(1) 학급내 집단따돌림의 유무 실태

학급내 집단따돌림의 유무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분석하기 위해 χ^2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학급내 집단따돌림의 유무 실태

구 분		있다	없다	Tota
Total	전체 응답자수(명)	98	181	279
	전체 해당 백분율 (%)	35.1%	64.9%	100.0%
	남녀 전체 응답자 백분율내(%)	100.0%	100.0%	100.0%
남학생	남학생 응답자수(명)	33	106	139
	남학생내 선택응답 백분율 (%)	23.7%	76.3%	100.0%
	남녀 전체 선택응답 백분율내(%)	33.7%	58.6%	49.8%
여학생	여학생 응답자수(명)	65	75	140
	여학생내 선택응답 백분율 (%)	46.4%	53.6%	100.0%
	남녀 전체 선택응답 백분율내(%)	66.3%	41.4%	50.2%
χ^2 검증				
구분		Value	df	Asymp. Sig. (2-sided)
Pearson Chi-Square		15.755	1	.000*

*:p<0.01, **:p<0.05

즉, 학급내 집단따돌림의 유무와 성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남녀 전체에서 학급내 집단따돌림이 있다에 98명(35.1%), 없다에 181명(64.9%)으로 응답했다.

이를 성별로 알아보면 남학생은 학급내 집단따돌림이 있다에 33명(남학생 내 23.7%, 전체 중 33.7%), 없다에 106명(남학생 내 76.3%, 전체 중 58.6%)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은 학급내 집단따돌림이 있다에 65명(여학생 내 23.7%, 전체 중 33.7%), 없다에 75명(여학생 내 46.4%, 전체 중 58.6%)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학급내 집단따돌림이 있다는 응답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많이 발견되었다.

그러므로 남녀 성별 간에 학급내 집단따돌림 유무에는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다($\chi^2=15.755$, $p<0.01$)

(2) 집단따돌림의 목격 유무

학급내 집단따돌림의 유무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분석하기 위해 χ^2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와 같다.

<표 6> 집단따돌림의 목격 유무

구 분		지금까지의 목격 유무		Total
		있다	없다	
Total	전체 응답자수(명)	169	110	279
	전체 해당 백분율 (%)	60.6%	39.4%	100.0%
	남녀 전체 응답자 백분율내(%)	100.0%	100.0%	100.0%
남학생	남학생 응답자수(명)	74	65	139
	남학생내 선택응답 백분율 (%)	53.2%	46.8%	100.0%
	남녀 전체 선택응답 백분율내(%)	43.8%	59.1%	49.8%
여학생	여학생 응답자수(명)	95	45	140
	여학생내 선택응답 백분율 (%)	67.9%	32.1%	100.0%
	남녀 전체 선택응답 백분율내(%)	56.2%	40.9%	50.2%
χ^2 검증				
구분		Value	df	Asymp. Sig. (2-sided)
Pearson Chi-Square		6.242	1	.012**

*: $p<0.01$, **: $p<0.05$

즉, 집단따돌림의 목격 유무와 성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남녀 전체에서 집단따돌림을 목격한 적이 있다에 169명(60.6%), 없다에 110명(39.4%)으로 응답했고, 이를 성별로 알아보면 남학생은 집단따돌림을 목격한 적이 있다에 74명(남학생 내 53.2%, 전체 중 43.8%), 없다에 65명(남학

생 내 46.8%, 전체 중 59.1%)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은 집단따돌림을 목격한 적이 있다에 95명(여학생 내 67.9%, 전체 중 56.2%), 없다에 45명(남학생 내 32.1%, 전체 중 40.9%)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집단따돌림을 목격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남학생, 여학생에서 모두 과반수 이상이 나왔으나, 남학생보다 여학생에서 훨씬 더 많이 발견되었다.

그러므로 남녀 성별 간에 집단따돌림의 목격 유무에는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다($X^2=6.242$, $p<0.05$)

(3) 집단따돌림 가해, 피해 경험의 유무실태

집단따돌림의 가해·피해 경험 유무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분석하기 위해 χ^2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7>와 같다.

<표 7> 집단따돌림 가해, 피해 경험의 유무실태

구분		가해나 피해 유무			Total
		가해	피해	가해, 피해없다	
Total	전체 응답자수(명)	70	27	182	279
	전체 해당 백분율 (%)	25.1%	9.7%	65.2%	100.0%
	남녀 전체 응답자 백분율내(%)	100.0%	100.0%	100.0%	100.0%
남학생	남학생 응답자수(명)	29	9	101	139
	남학생내 선택응답 백분율 (%)	20.9%	6.5%	72.7%	100.0%
	남녀 전체 선택응답 백분율내(%)	41.4%	33.3%	55.5%	49.8%
여학생	여학생 응답자수(명)	41	18	81	140
	여학생내 선택응답 백분율 (%)	29.3%	12.9%	57.9%	100.0%
	남녀 전체 선택응답 백분율내(%)	58.6%	66.7%	44.5%	50.2%
χ^2 검증					
구분		Value	df	Asymp. Sig. (2-sided)	
Pearson Chi-Square		7.251	2	.027**	

*: $p<0.01$, **: $p<0.05$

즉, 집단따돌림의 가해·피해 경험 유무와 성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남녀 전체에서 집단따돌림을 한 적(가해)이 있다에 70명(25.1%), 당한 적(피해)이 있다에 27명(9.7%), 집단따돌림을 한 적도 당한 적도 없다는 182명(65.2%)으로 응답했다.

이를 성별로 알아보면 남학생은 집단따돌림을 한 적(가해)이 있다에 29명(남학생 내 20.9%, 전체 중 41.4%)이고, 당한 적(피해)이 있다에 9명(남학생 내 6.5%, 전체 중 33.3%)이며, 집단따돌림을 한 적도 당한 적도 없다는 101명(남학생 내 72.7%, 전체 중 55.5%)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은 집단따돌림을 한 적(가해)이 있다에 41명(여학생 내 29.3%, 전체 중 58.6%)이고, 당한 적(피해)이 있다에 18명(여학생 내 12.9%, 전체 중 66.7%)이며, 집단따돌림을 한 적(가해)도 당한(피해) 적도 없다는 81명(여학생 내 57.9%, 전체 중 44.5%)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집단따돌림을 한 적(가해) 있다는 응답과 당한 적(피해) 있다는 응답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에서 더 많이 나타났고, 집단따돌림을 한 적(가해)도 당한(피해)적도 없다는 응답은 남학생에서 더 많이 나타났다.

그러므로 남녀 성별 간에 집단따돌림의 가해·피해 경험 유무에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다($X^2=7.251$ $p<0.05$)

정리하면, 중학교 학생의 성별에 따라 학급내 집단따돌림 유무, 집단따돌림의 목적 유무, 집단따돌림 가해, 피해 경험의 유무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했다.

이러한 결과는 집단따돌림의 발생정도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많이 발생한다고 보고한 Olweus(1994), 한국교육개발원(1998)의 연구결과와 상반되고, 성별과 발생정도에 유의미한 성차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지원(1999), 최은숙(2000)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지 않지만, 청소년 대화의 광장(1997) 및 청소년 폭력예방재단(1998)과 김용태와 박한샘(1997)의 남학생보

다 여학생 사이에서 더 많이 집단따돌림현상이 발생한다는 연구결과와 일치되는 경향과 같음을 알 수 있다.

3. 연구문제 2의 검토

- 중학교 학생들은 성별에 따라 집단따돌림 유형에 차이가 있는가?

집단따돌림을 목격한 적이 있다라는 응답을 한 남녀 학생 169명을 대상으로 집단따돌림의 유형의 남녀 학생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χ^2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8>와 같다.

<표 8> 집단따돌림 유형

구분		집단따돌림 유형						Total
		무시하거나 놀아주지 않음	다른사람과 못놀게함	욕, 협박, 폭력 행사	하기 싫은 일시키기	금품갈 취나 은닉	친구의 부탁 무시	
Total	전체 응답자수(명)	50	24	48	17	10	20	169
	전체 해당 백분율 (%)	29.6%	14.2%	28.4%	10.1%	5.9%	11.8%	100.0%
	남녀 전체 응답자 백분율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남 학 생	남학생 응답자수(명)	12	6	32	12	7	5	74
	남학생내 선택응답 백분율 (%)	16.2%	8.1%	43.2%	16.2%	9.5%	6.8%	100.0%
	남녀 전체 선택응답 백분율내(%)	24.0%	25.0%	66.7%	70.6%	70.0%	25.0%	43.8%
여 학 생	여학생 응답자수(명)	38	18	16	5	3	15	95
	여학생내 선택응답 백분율 (%)	40.0%	18.9%	16.8%	5.3%	3.2%	15.8%	100.0%
	남녀 전체 선택응답 백분율내(%)	76.0%	75.0%	33.3%	29.4%	30.0%	75.0%	56.2%
χ^2 검증								
구분		Value		df		Asymp. Sig. (2-sided)		
Pearson Chi-Square		32.224		5		.000*		

*p<0.01, **:p<0.05

즉, 집단따돌림의 유형과 성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남녀 전체에서는 무시하거나 놀아 주지 않는 것이 50명(29.6%), 다른 사람과 못 놀게 하는 것이 24명(14.2%), 욕, 협박, 폭력 행사는 48명(28.4%), 하기 싫은 일을 시키는 것은 17명(10.1%), 금품갈취나 은닉은 10명(5.9%), 친구의 부탁을 무시하는 것은 20명(11.8%)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분석해 보면 남학생은 무시하거나 놀아 주지 않는 것에 12명(남학생 내 16.2%, 전체 중 24.0%), 다른 사람과 못 놀게 하는 것이 6명(남학생 내 8.1%, 전체 중 12.0%), 욕, 협박, 폭력 행사에 32명(남학생 내 43.2%, 전체 중 66.7%), 하기 싫은 일을 시키는 것에 12명(남학생 내 16.2%, 전체 중 24.0%), 금품갈취나 은닉에 7명(남학생 내 9.5%, 전체 중 14.0%), 친구의 부탁을 무시한다에 5명(남학생 내 6.8%, 전체 중 10.0%)이 응답하였다.

즉, 남학생은 욕, 협박, 폭력행사가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했다.

한편 여학생은 무시하거나 놀아 주지 않는 것에 38명(여학생 내 40.0%, 전체 중 76.0%), 다른 사람과 못 놀게 하는 것이 18명(여학생 내 18.9%, 전체 중 36.0%), 욕, 협박, 폭력 행사에 16명(여학생 내 16.8%, 전체 중 32.0%), 하기 싫은 일을 시키는 것에 5명(여학생 내 5.3%, 전체 중 10.0%), 금품갈취나 은닉에 3명(여학생 내 3.2%, 전체 중 6.0%), 친구의 부탁을 무시한다에 15명(여학생 내 15.8%, 전체 중 30.0%)이 응답하였다.

여학생은 무시하거나 놀아주지 않는 유형이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했다.

남녀 학생을 비교해 보면, 여학생 보다는 남학생이 욕, 협박, 폭력 행사와 하기 싫은 일 시키기, 금품갈취와 은닉에서 높은 응답율을 보였고,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무시하거나 놀아주지 않는 것과 다른 사람과 못 놀게 하는 것, 그리고 친구의 부탁을 무시하는 형이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그러므로 남녀 성별 간에 집단따돌림 유형은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X^2=32.224$, $p<0.01$)

또한 x^2 검증의 유형분기를 이용하여 남녀 학생들이 선택한 집단따돌림 유형에 따른 구분형태의 차이는 <표 8-1>과 다음과 같다.

<표 8-1> 집단따돌림 유형 구분

구분		유형분기		Total
		관계적유형	외현적유형	
Total	전체 응답자수(명)	94	75	169
	전체 해당 백분율 (%)	55.6%	44.4%	100.0%
	남녀 전체 응답자 백분율내(%)	100.0%	100.0%	100.0%
남학생	남학생 응답자수(명)	23	51	74
	남학생내 선택응답 백분율 (%)	31.1%	68.9%	100.0%
	남녀 전체 선택응답 백분율내(%)	24.5%	68.0%	43.8%
여학생	여학생 응답자수(명)	71	24	95
	여학생내 선택응답 백분율 (%)	74.7%	25.3%	100.0%
	남녀 전체 선택응답 백분율내(%)	75.5%	32.0%	56.2%
x^2 검증				
구분		Value	df	Asymp. Sig. (2-sided)
Pearson Chi-Square		32.117	1	.000*

*: $p<0.01$, **: $p<0.05$

즉, 관계적 유형인 무시하거나 놀아주지 않는 것과 다른 사람과 못 놀게 하는 것, 친구의 부탁을 무시하는 것은 여학생에서 높게 나타나며, 외현적 집단따돌림 유형인 욕, 협박, 폭력 행사와 하기 싫은 일 시키기, 금품갈취와 은닉이 남학생에서 높게 나타났다.

정리하면, 남녀 학생 성별 간에 집단따돌림 유형에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X^2=32.117$, $p<0.01$)

또한 성별에 따른 집단따돌림 유형과 관련한 기존의 연구결과와 비교하면, 관계적 유형이 남녀 학생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지원(1999) 조사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았지만,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외현적

유형을 더 많이 경험한다는 김용태와 박한샘(1997), 최은숙(2000)의 연구결과와 함께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더 많이 관계적 유형을 경험하다는 황성숙(1999)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4. 연구문제 3의 검토

- 중학교 학생들은 성별에 따라 집단따돌림의 인식에 차이가 있는가?

(1) 집단따돌림 이유에 대한 인식

집단따돌림 이유에 대한 인식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분석하기 위해 χ^2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 집단따돌림 이유에 대한 인식

구분		신체적 조건	~척한다	이기적 건방짐	공부 못하거나 지능낮음	언행이상이나 눈치없음	소극적
Total	전체 응답자수(명)	31	66	68	35	47	31
	전체 해당 백분율 (%)	11.2%	23.7%	24.5%	12.6%	16.9%	11.2%
	남녀 전체 응답자 백분율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남학생	남학생 응답자수(명)	27	23	28	22	24	15
	남학생내 선택응답 백분율 (%)	19.4%	16.5%	20.1%	15.8%	17.3%	10.8%
	남녀 전체 선택응답 백분율내(%)	87.1%	34.8%	41.2%	62.9%	51.1%	48.4%
여학생	여학생 응답자수(명)	4	43	40	13	23	16
	여학생내 선택응답 백분율 (%)	2.9%	30.9%	28.8%	9.4%	16.5%	11.5%
	남녀 전체 선택응답 백분율내(%)	12.9%	65.2%	58.8%	37.1%	48.9%	51.6%
χ^2 검증							
구분		Value		df	Asymp. Sig. (2-sided)		
Pearson Chi-Square		27.611		5	.000*		

*:p<0.01, **:p<0.05

남녀 전체에서는 신체적 조건에 31명(11.2%), ~척한다에 66명(23.7%), 이기적·건방짐에 68명(24.5%), 공부 못하거나 지능 낮음에 35명(12.6%), 언행이상이나 눈치 없음에 47명(16.9%), 소극적에 31명(11.5%)이 선택하였다.

성별에 따라 분석한 결과 남학생은 신체적 조건에 27명(남학생 내 19.4%, 전체 중 87.1%), ~척한다에 23명(남학생 내 16.5%, 전체 중 34.8%), 이기적·건방짐에 28명(남학생 내 20.1%, 전체 중 41.2%), 공부 못하거나 지능 낮음에 22명(남학생 내 15.8%, 전체 중 62.9%), 언행이상이나 눈치 없음에 24명(남학생 내 17.3%, 전체 중 51.1%), 소극적에 15명(남학생 내 10.8%, 전체 중 48.4%)이 선택하였다. 남학생은 이기적이거나 건방질 때 가장 따돌림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은 신체적 조건에 4명(여학생 내 2.9%, 전체 중 12.9%), ~척한다에 43명(여학생 30.9%, 전체 중 65.2%), 이기적·건방짐에 40명(여학생 내 28.8%, 전체 중 58.8%), 공부 못하거나 지능 낮음에 13명(여학생 내 9.4%, 전체 중 37.1%), 언행이상이나 눈치 없음에 23명(여학생 내 16.5%, 전체 중 48.9%), 소극적에 16명(여학생 내 11.5%, 전체 중 51.6%)이 선택하였다.

여학생은 ~척할 때 가장 따돌림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신체적 조건에서는 더 따돌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척 한다에서와 이기적이거나 건방짐에서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따돌리는 것으로, 공부를 못하거나 지능이 낮음에서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더 따돌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행이나 눈치 없음, 그리고 소극적에서는 남녀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남녀 성별 간에 따돌리는 이유에는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X^2=27.611$, $p< 0.01$)

(2) 집단따돌림 가해자를 보는 인식(느낌)

집단따돌림의 가해자를 보는 인식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분석하기 위해 χ^2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0>와 같다.

<표 10> 가해자를 보는 인식(느낌)

구분		가해자를 본 느낌				Total
		멋있어 보임	별 느낌 없음	나쁘다고 생각만 함	혼내 주고 싶음	
Total	전체 응답자수(명)	7	103	125	43	278
	전체 해당 백분율 (%)	2.5%	37.1%	45.0%	15.5%	100.0%
	남녀 전체 응답자 백분율내(%)	100.0%	100.0%	100.0%	100.0%	100.0%
남학생	남학생 응답자수(명)	6	43	62	27	138
	남학생내 선택응답 백분율 (%)	4.3%	31.2%	44.9%	19.6%	100.0%
	남녀 전체 선택응답 백분율내(%)	85.7%	41.7%	49.6%	62.8%	49.6%
여학생	여학생 응답자수(명)	1	60	63	16	140
	여학생내 선택응답 백분율 (%)	.7%	42.9%	45.0%	11.4%	100.0%
	남녀 전체 선택응답 백분율내(%)	14.3%	58.3%	50.4%	37.2%	50.4%
χ^2 검증						
구분	Value	df	Asymp. Sig. (2-sided)			
Pearson Chi-Square	9.185	3	.027**			

*:p<0.01, **:p<0.05

남녀 전체에서는 멋있어 보임에 7명(2.5%), 별 느낌 없음에 103명(37.1%), 나쁘다고 생각만 함에 125명(45.0%), 혼내주고 싶음에 43명(15.5%)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분석해보면 남학생은 멋있어 보임에 6명(남학생 내 4.3%, 전체 중 85.7%), 별 느낌 없음에 43명(남학생 내 31.2%, 전체 중 41.7%) 나쁘다고 생각만에 62명(남학생 내 44.9%, 전체 중 49.6%), 혼내주고 싶음에 27명(남학생 내 19.6%, 전체 중 62.8%)이고, 남학생은 나쁘다고만 생각만한다가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다.

여학생은 멋있어 보임에 1명(여학생 내 0.7%, 전체 중 14.3%), 별 느낌

없음에 60명(여학생 내 42.9%, 전체 중 58.3%) 나쁘다고 생각만에 63명(여학생 내 45.0%, 전체 중 50.4%), 혼내주고 싶음에 16명(여학생 내 11.4%, 전체 중 37.2%)으로 여학생도 나쁘다고만 생각만한다가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다. 그러나 별 느낌 없음에는 남학생 보다는 여학생이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멋있어 보임과 혼내주고 싶음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더 높은 응답율을 보였다,

그러므로 남녀 성별 간에 가해자를 보는 인식에는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X^2=9.185$, $p< 0.05$)

(3) 집단따돌림 누가 문제인가에 대한 인식

집단따돌림의 발생책임이 누구인지에 대한 인식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분석하기 위해 x^2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표 11> 집단따돌림 누가 문제인가

구분		원인제공자				Total
		피해자	가해자	양쪽	잘 모르겠다	
Total	전체 응답자수(명)	60	66	140	13	279
	전체 해당 백분율 (%)	21.5%	23.7%	50.2%	4.7%	100.0%
	남녀 전체 응답자 백분율내(%)	100.0%	100.0%	100.0%	100.0%	100.0%
남학생	남학생 응답자수(명)	19	36	77	7	139
	남학생내 선택응답 백분율 (%)	13.7%	25.9%	55.4%	5.0%	100.0%
	남녀 전체 선택응답 백분율내(%)	31.7%	54.5%	55.0%	53.8%	49.8%
여학생	여학생 응답자수(명)	41	30	63	6	140
	여학생내 선택응답 백분율 (%)	29.3%	21.4%	45.0%	4.3%	100.0%
	남녀 전체 선택응답 백분율내(%)	68.3%	45.5%	45.0%	46.2%	50.2%
x^2 검증						
구분		Value	df	Asymp. Sig. (2-sided)		
Pearson Chi-Square		10.086	3	.018**		

*:p<0.01, **:p<0.05

남녀 전체에서는 피해자에 60명(21.5%), 가해자에 66명(23.7%), 양쪽다에 140명(50.2%), 잘 모르겠다에 13명(4.7%)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분석해보면, 남학생은 피해자에 19명(남학생 내 13.7%, 전체 중 13.7%), 가해자에 36명(남학생 내 25.9%, 전체 중 54.5%), 양쪽다에 77명(남학생 내 55.4%, 전체 중 55.0%), 잘 모르겠다에 7명(남학생 내 5.0%, 전체 중 53.8%)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은 양쪽다가 문제라는 응답이 많았다.

여학생은 피해자에 41명(여학생 내 29.3%, 전체 중 68.3%), 가해자에 30명(여학생 내 21.4%, 전체 중 45.5%), 양쪽다에 63명(여학생 내는 45.0%, 전체 중 45.0%), 잘 모르겠다에 6명(여학생 내 4.3%, 전체 중 46.2%)으로 나타났다. 여학생도 양쪽다가 문제라는 응답이 많았다.

즉, 남녀 학생 모두 양쪽다 문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지만, 피해자가 원인이라는 응답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많았고, 가해자나 양쪽다가 문제라는 응답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많았다. 그리고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남녀 학생 모두 비슷하게 나왔다.

그러므로 남녀 성별 간에 따돌리는 이유에는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X^2=10.086$, $p<0.05$)

(4) 집단따돌림 현상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집단따돌림 현상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분석하기 위해 x^2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2>와 같다.

<표 12> 집단따돌림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구분		따돌림심각성인지정도				Total
		별일 아니다	아직 그리 심각 하지 않음	심각함	당장 조치가 필요함	
Total	전체 응답자수(명)	26	121	96	34	277
	전체 해당 백분율 (%)	9.4%	43.7%	34.7%	12.3%	100.0%
	남녀 전체 응답자 백분율내(%)	100.0%	100.0%	100.0%	100.0%	100.0%
남 학 생	남학생 응답자수(명)	11	57	46	24	138
	남학생내 선택응답 백분율 (%)	8.0%	41.3%	33.3%	17.4%	100.0%
	남녀 전체 선택응답 백분율내(%)	42.3%	47.1%	47.9%	70.6%	49.8%
여 학 생	여학생 응답자수(명)	15	64	50	10	139
	여학생내 선택응답 백분율 (%)	10.8%	46.0%	36.0%	7.2%	100.0%
	남녀 전체 선택응답 백분율내(%)	57.7%	52.9%	52.1%	29.4%	50.2%
χ^2 검증						
구분		Value	df	Asymp. Sig. (2-sided)		
Pearson Chi-Square		6.948	3	.074		

*:p<0.01, **:p<0.05

남녀 전체에서는 별일 아니다에 26명(9.4%), 아직 그리 심각하지 않음에 121명(43.7%), 심각함에 96명(34.7%), 당장 조치가 필요함에 34명(12.3%)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분석해보면 남학생은 별일 아니다에 11명(남학생 내 8.0%, 전체 중 42.3%), 아직 그리 심각하지 않음에 57명(남학생 내 41.3%, 전체 중 47.1%), 심각함에 46명(남학생 내 33.3%, 전체 중 47.9%), 당장 조치가 필요함에 24명(남학생 내 17.4%, 전체 중 70.6%)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은 아직 그리 심각하지 않음이 많은 응답을 얻었다.

여학생은 별일 아니다에 15명(여학생 내 10.8%, 전체 중 57.7%), 아직 그리 심각하지 않음에 64명(여학생 내 46.0%, 전체 중 52.9%), 심각함에 50명(여학생 내 36.0%, 전체 중 52.1%), 당장 조치가 필요함에 10명(여학생

내 7.2%, 전체 중 29.4%)으로 나타났다. 여학생도 아직 그리 심각하지 않음이 많은 응답을 얻었다.

집단따돌림의 심각성 인식정도는 별일 아니다와 아직 그리 심각하지 않음과 심각함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근소하게 높은 응답율을 보였고, 당장 조치가 필요함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근소하게 높은 응답율을 보였다.

즉, 남녀 성별 간에 집단따돌림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에는 그리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X^2=6.948$, $p>0.05$)

(5) 집단따돌림 해결을 위해 학교에 바라는 점에 대한 인식

집단따돌림 해결을 위해 학교에 바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분석하기 위해 x^2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3>와 같다.

<표 13> 해결을 위해 학교에 바라는 점

구분		학교에 바라는 해결방안					Total
		신고체제 강화	개인별 집단상담 증가	인간관계 증진교육 강화	재미있는 자치교육 유도	교내 순찰 활동 강화	
Total	전체 응답자수(명)	60	82	69	43	21	275
	전체 해당 백분율 (%)	21.8%	29.8%	25.1%	15.6%	7.6%	100.0%
	남녀 전체 응답자 백분율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남학생	남학생 응답자수(명)	43	33	28	20	13	137
	남학생내 선택응답 백분율 (%)	31.4%	24.1%	20.4%	14.6%	9.5%	100.0%
	남녀 전체 선택응답 백분율내(%)	71.7%	40.2%	40.6%	46.5%	61.9%	49.8%
여학생	여학생 응답자수(명)	17	49	41	23	8	138
	여학생내 선택응답 백분율 (%)	12.3%	35.5%	29.7%	16.7%	5.8%	100.0%
	남녀 전체 선택응답 백분율내(%)	28.3%	59.8%	59.4%	53.5%	38.1%	50.2%
x^2 검증							
구분		Value	df	Asymp. Sig. (2-sided)			
Pearson Chi-Square		18.234	4	.001**			

*:p<0.01, **:p<0.05

남녀 전체에서는 신고체제 강화에 60명(21.8%), 개인별 집단상담 강화에 82명(29.8%), 인간관계 증진교육 강화에 69명(25.1%), 재미있는 자치교육 유도에 43명(15.6%), 교내 순찰활동 강화에 21명(7.6%)로 나타났다.

성별로 분석해보면 남학생은 신고체제 강화에 43명(남학생 내 31.4%, 전체 중 71.7%) 개인별 집단상담 강화에 33명(남학생 내 24.1%, 전체 중 40.2%), 인간관계 증진교육 강화에 28명(남학생 내 20.4%, 전체 중 40.6%), 재미있는 자치교육 유도에 20명(남학생 내 14.6%, 전체 중 46.5%), 교내 순찰활동 강화에 13명(남학생 내에서는 9.5%, 전체 중 61.9%)로 나타났다.

남학생은 신고체제 강화가 가장 많은 응답을 얻었다.

여학생은 신고체제 강화에 17명(여학생 내 12.3%, 전체 중 28.3%) 개인별 집단상담 강화에 49명(여학생 내 35.5%, 전체 중 59.8%), 인간관계 증진교육 강화에 41명(여학생 내 29.7%, 전체 중 59.4%), 재미있는 자치교육 유도에 23명(여학생 내 16.7%, 전체 중 53.5%), 교내 순찰활동 강화에 8명(여학생 내 5.8%, 전체 중 38.1%)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은 개인별 집단상담 강화가 가장 많은 응답을 얻었다.

집단따돌림 해결을 위해 학교에 바라는 점에 대한 인식은 개인별 집단상담 강화와 인간관계 증진교육 강화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응답율을 보였고, 신고체제 강화와 교내 순찰활동 강화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응답율을 보였으며, 재미있는 자치교육유도는 남녀 학생 모두 비슷한 응답율을 보였다.

그러므로 남녀 성별 간에 집단따돌림 해결을 위해 학교에 바라는 해결 방안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X^2=18,234$ p< 0.05)

정리하면, 집단따돌림 현상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만 성별에 따른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을 뿐 나머지 집단따돌림 이유에 대한 인식, 집

단따돌림 가해자를 보는 인식, 집단따돌림이 누가 문제인지에 대한 인식, 집단따돌림 해결을 위해 학교에 바라는 점에 대한 인식은 모두 의미 있는 차이를 가지고 있다고 검증됨에 따라 중학교 학생들의 성별과 집단따돌림의 인식은 의미 있는 차이가 있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집단따돌림의 피해자, 가해자 중심의 인식에만 치우쳐 성별에 따른 집단따돌림의 인식에 대한 연구가 미흡했던 기존의 연구와 다른 첫발걸음을 본 연구가 내딛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IV. 결론 및 제언

1. 요약 및 결론

이미 하나의 사회 문제가 되어버린 집단따돌림 현상은 언론매체를 통해서 자주 접할 수 있고 일선 학교에서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학교생활에서 또래들로부터 적응을 못한 아이들은 신체적 정신적 충격은 물론 사회화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심각성을 인지하면서 본 연구는 가장 집단따돌림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중학생들의 성별에 따른 집단따돌림의 실태 및 그에 대한 중학생들의 인식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는 집단따돌림에 대한 남녀 학생의 심도 있는 특성 연구 등에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고, 남녀 학생들의 집단따돌림 방지 지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시작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중학교 학생들은 성별에 따라 집단따돌림 실태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중학교 학생들은 성별에 따라 집단따돌림의 유형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중학교 학생들은 성별에 따라 집단따돌림의 인식에 차이가 있는가?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한 연구 대상은 부산광역시 소재 남녀중학생으로

하였으며, 표집대상으로 중학교 4개교(남중 2개교, 여중 2개)를 무작위로 선정한 후 학년 상관없이 설문지를 이용해 1개교 70부씩 총 280명분을 배부해 조사하였다. 여기서 배부된 280부 중 회수되지 않은 남학생 1명의 설문지 제외한 279명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도구는 박노일(1998)의 학교폭력에 대한 설문지와 김용태(1997)의 청소년 친구 따돌림 실태조사의 설문지를 참고로 하여 수정·보완하여 작성한 설문지로 집단따돌림의 실태와 인식을 알아보는 유형의 질문들로 구성되어졌으며, 자료처리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사용된 분석기법으로는 전체문항에 대해 빈도분석으로 사례수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성별에 따른 집단따돌림의 실태 및 인식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χ^2 검증(카이 스퀘어검증)실시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중학생들의 성별에 따른 집단따돌림의 실태 및 유형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검증하였다. 검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 째, 학급내 집단따돌림의 발생정도, 목격경험 및 피해를 받거나 가해를 가한 경험 모두 남학생 보다 여학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여학생의 경우 과반수가 넘는 60.6%가 집단따돌림을 목격한 것으로 조사되어 학교내 집단따돌림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둘 째, 집단따돌림을 목격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집단따돌림 유형과 성별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여학생 보다는 남학생이 욕, 협박, 폭력 행사형과 하기 싫은 일 시키기, 금품갈취와 은닉의 형태를 취하는 외현적 유형에서 높은 응답율을 보였고,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무시하거나 놀아주지 않고 다른 사람과 못 놀게 하며, 친구의 부탁을 무시하는 형태를 취하는 관계적 유형에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요컨대, 성별간에 집단따돌림 유형은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며, 남학생은 외현적 집단따돌림 유형이 여학생은 관계적 집단따돌림 유형이 서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중학생의 성별에 따른 집단따돌림의 인식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검증하였다. 검증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 째, 집단따돌림의 이유에 대한 인식에서는 남학생은 이기적이거나 건방질 때 가장 따돌림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여학생은 ~하는 척할 때 가장 따돌림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남학생이 신체적 조건과 공부를 못하거나 지능이 낮음을 이유로 더 따돌리는 것으로 나타났고, ~척 한다에서와 이기적이거나 건방지다는 이유에선 여학생이 더 따돌리는 것으로 나타나 성별에 따라 집단따돌림 이유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발견 할 수 있었다.

둘 째, 가해자를 보는 인식(느낌)과 성별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남녀 학생 모두 가해자를 나쁘다고 생각만한다가 가장 많은 응답을 얻었으나, 가해자가 멋있어 보인다고 별 느낌 없음에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응답을, 가해자를 혼내주고 싶다에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더 높은 응답을 보여 가해자를 보는 인식(느낌)에서 성별간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상기할 것은 별 느낌 없다는 대답이 남학생 31.2%, 여학생 42.9%나 응답한 것으로 보아, 자신의 일이 아니면 관심을 갖지 않는 현대의 무관심 현상을 실감할 수 있다는 점과 이러한 무관심 현상이 남학생에 비해 집단따돌림에서 높은 비율을 가지는 여학생 쪽에서 더 심함을 알 수 있다.

셋 째, 집단따돌림 누가 문제인가에 대한 인식과 성별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남녀 학생들 모두 양 쪽다가 문제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지만, 피해자가 원인이라는 응답이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많았고, 가해자나 양쪽다가 문제라는 응답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많아 남녀 학생 사이에 유의미

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 할 수 있었다.

넷째, 집단따돌림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성별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남녀 학생 모두 아직 그리 심각하지 않음에 각각 41.3%, 46%를 선택하여, 집단따돌림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진 않았다. 다만 당장 조치가 필요하다에 전체학생의 12.3% 정도만이 응답한 것으로 보아 학생들 대다수는 스스로 집단따돌림에 대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학교에 바라는 해결 방안에 대한 성별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남학생은 신고체제 강화가, 여학생은 개인별 집단상담 강화가 가장 많은 응답을 얻었다.

그 외에 개인별 집단상담 강화와 인간관계 증진교육 강화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응답을 보였고, 신고체제 강화와 교내 순찰활동 강화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응답을 보여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남학생의 경우 학교에 바라는 해결방안이 여학생들이 원하는 간접적인 방안보다는 좀 더 직접적인 방안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학생의 성별이 집단따돌림의 실태와 유형 및 인식에 차이에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2. 제언

위 본 연구의 결과에 근거하여 집단따돌림 예방 및 올바른 지도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중학교 학생들은 성별에 따라 집단따돌림의 실태와 인식에서 유의미한 차이들을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집단따돌림에 대한 지도 시 남녀 학생의 차이점을 고려하여 지도 및 선도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집단따돌림에 대한 단순한 실태조사가 아닌 남녀 학생의 인식에 대한 지속적이고 심층적인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남녀 학생들의 따돌림 실태와 인식의 차이를 고려하여 따돌림 사례 유형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집단따돌림 문제해결을 위한 학교중심의 적극적 개입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재인식이 시급한데, 본 연구에서 나타난 남녀 학생들이 집단따돌림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학교에 요구한 점을 바탕으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방안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① 본 학생들이 가장 원하는 집단따돌림 해결방안인 개인별 집단 상담 증가를 위해 학교에 전문 상담교사를 배치하고 일반교사에 대한 상담교육과 연수를 실시하여 집단따돌림 현상의 예방과 진단에 노력해야 한다.

② 둘째, 인간관계 증진교육의 일환으로 학교교육과정에 인권교육이 도입되어야 한다. 학교현장에서부터 인권을 존중하고 그 속에서 공동체성과 자율성이 싹틀 수 있는 풍토 조성을 해 주어야 한다.

③ 셋째, 신고체제의 정비와 신고정신 교육이 요구된다.

교육일선현장인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신고나 고발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도록 지도하여 보다 나은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집단따돌림 의견함이나 신고함을 설치하여 즉각 대응하는 체제의 구축 및 신고를 생활화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국내문헌>

- 구본용(1997), “청소년 집단 따돌림의 원인과 지도방안, 따돌리는 아이들, 따돌림 당하는 아이들”, 청소년 대화광장.
- 김용태, 박한샘(1997), 『청소년 집단따돌림의 실태조사』, 서울: 청소년 대화의 광장.
- 박경숙(1998), 『학생의 왕따 현상』, 한국교육신문사.
- 박종원(2005), “초등학생 집단따돌림 피해행동의 생태체계적 요인에 관한 요인”,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병기(2000), “청소년기의 집단따돌림의 유형과 특성조사연구”,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학위논문.
- 박진생(1999) 『청소년 집단따돌림의 원인과 영향은 무엇인가?』, 서울가정법원소년자원보호자 협회 상담세미나 자료집.
- 소완섭(2003), “청소년 집단따돌림 피해자의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인문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옥수선(2000), “학교에서의 집단따돌림의 실태와 대응방안”, 부산대학교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왕따리포트(1999), 『왕따 실태 원인에서 해결 방안까지』, 서울: (주) 가우디.
- 이길규(2002), “중학생의 집단따돌림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우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돈희(1996), 『학교폭력 현실과 대책』, 한국청소년 교육연구소.
- 이성희(2001), “중학생의 집단따돌림 현상에 관한 연구” 순천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원(1999), “부모의 양육태도가 또래부터의 공격피해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지현(2006), “집단괴롭힘 피해경험과 가해행동과의 관계에서 자동적 사고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춘재 외(1999) “학교폭력의 학술적·사회적 대안”, 한국심리학회.

임덕남(2005), “중학교 담임의 지도성과 학급풍토및 집단따돌림 성향간의 관계분석”, 군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임철빈(2002), “집단따돌림의 유허영 따른 가해, 피해 초등학생의 심리적 특성 연구”,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추진본부(1998), 『어린이 동산』.

전동엽(2002), “고교생 집단따돌림 현상분석”, 수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전영기(2000), “청소년기의 집단따돌림의 유형과 특성조사 연구”,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최은숙(2000), “집단따돌림 가해 · 피해 경향과 관련된 심리적 요인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최현태(2004), “초등학생의 집단따돌림과 성역할 유형과의 관계”, 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육개발원(편)(1998), 『학생의 왕따현상에 대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홍영기(2000), “초등학교 집단따돌림에 대한 학부모, 교사, 학생의 인식 비교”,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황성숙(1998), “학교내 집단 괴롭힘에 대한 일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신문자료>

경향신문, 2003년 8월 19일 기사.

중앙일보, 2006년 3월 20일 기사.

한겨레신문, 2006년 11월 14일 기사.

한국일보, 2006년 12월 3일 기사.

<외국문헌>

Circk, N. R. & Grotper, J. K.(1996), "Relational Aggression, Gender, and Social-Psychologic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6, pp.710-722.

Heinemann, P. P.(1972), *Mobbing-groupvald Bland Barn Och Vuxna*, Stockholm : Natur och Kultur.

----- (1973), *Mobbing*, Oslo: Gyldendal.

Herbert, G.(1988), "A whole curriculum approach to bullying", in D. P. Tattum & D. A. Lane, (eds.), *Bullying in Schools*, Stoke-on-Trent, UK: Trentham Books.

Olweus, D.(1973), "Personality and aggression", in J. K. Cole & D. D. Jenson, (eds.),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1972*, Lincoln :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1978), *Aggression in the Schools: Bullying and Whipping Boy*, Washington D. C. : Hemisphere Press.

----- (1991), "Bully/victim problems among schoolchildren: basic facts and effect of a school based intervention program", in D. Pepler & K. Rubin, (eds.), *The Development and Treatment of Childhood Aggression*, Hillsdale, N. J.: Erlbaum.

Smith, P. K.(1991), "The silent nightmare : Bullying and victimization in school peer groups", *Bulletin of the British Psychological Society*, 4, pp.243-248.

설문조사지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지는 중학생 여러분들이 느끼는 집단따돌림의 실태 및 유형, 인지 정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설계된 설문지입니다.

질문들을 차례로 읽어보시고 자신의 생각과 같거나 유사한 해당사항 한 가지씩을 골라 V표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설문지는 무기명 비밀로 통계처리되어 응답해주신 내용은 본 연구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시어 귀하의 평소 생각을 솔직하게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7. 4.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일반사회전공

연구자 이 효 정

<기초조사>

☞ 해당()안에 V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별 : ① 남() ② 여 ()

<집단따돌림 실태>

☞ 각 문항을 읽고 해당()안에 V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생의 학급에는 “따 혹은 왕따”(집단따돌림이나 괴롭힘을 받는 아이)가 있습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

2. 지금까지 학교를 다니면서 “따 혹은 왕따”(집단따돌림이나 괴롭힘을 받는 아이) 본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

3. 지금까지 학교를 다니면서 반 친구나 학교선배, 주위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거나 따돌린 적이 있습니까?

- ① 따돌린 적이 있다 ()
② 따돌림을 받은 적이 있다 ()
③ 따돌림을 받은 적도 따돌린 적도 없다 ()

<집단따돌림에 대한 유형>

☞ 위 2번 문항에 ①번을 선택한 학생만 선택해 주세요.

4. 집단따돌림을 당하거나 시키는 아이들의 주된 따돌림 유형은 어떤 것입니까?

- ① 무시하거나 같이 놀아주지 않는다 ()
- ② 다른 사람과 못 놀게 한다 ()
- ③ 욕하거나 헐뜯거나 때리기도 한다 ()
- ④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시킨다-심부름, 숙제대신하기등 ()
- ⑤ 돈이나 물건 등을 빼앗거나 감춘다 ()
- ⑥ 친구의 부탁을 무시한다 ()

<집단따돌림에 대한 인식>

☞ 각 문항을 읽고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해당()안에 V 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집단따돌림의 피해자들이 따돌림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① 신체적으로 결함이있거나, 허약하거나 왜소하다 ()
- ② 척한다-잘난척, 예쁜척, 공부잘하는척, 돈많은척 등 ()
- ③ 이기적이고 남을 무시하며 건방지다 ()

- ④ 공부를 못하거나 지능이 낮다 ()
- ⑤ 말과 행동이 이상하고 눈치가 없다 ()
- ⑥ 말이 없고 소극적이며 남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 ()

6. 집단따돌림을 시키는 학생(가해자)을 봤을 때의 어떤 기분(느낌)이 됩니까?

- ① 멋있어 보임 ()
- ② 별 느낌이 없음 ()
- ③ 나쁘다고 생각함 ()
- ④ 혼내주고 싶음 ()

7. 따돌림을 받는 아이와 따돌리는 아이 중 어느 쪽에 문제가 있어 따돌림이 일어난다고 생각 하나요?

- ① 따돌림을 받는 친구가 문제있다 ()
- ② 따돌림을 하는 친구가 문제있다 ()
- ③ 양쪽 다 문제가 있다 ()
- ④ 잘 모르겠다 ()

8. 집단따돌림 현상을 어느 정도 심각하게 생각하나요?

- ① 별일 아니더라고 생각함 ()
- ② 아직 그리 심각하지 않음 ()
- ③ 심각함 ()
- ④ 당장 조치가 필요함 ()

9. 집단따돌림을 해결하기 위해 학교에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 ① 신고 체제를 강화한다 ()
- ② 개인별 집단 상담을 늘린다 ()
- ③ 인간관계를 돕는 교육을 자주한다 ()
- ④ 자치활동을 재미있게 한다 ()
- ⑤ 교내 순찰 활동 등을 강화한다 ()

※ 감사합니다.